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신문광고문의 : 043)234-0840~2
FAX : 043)234-0849 H·P : https://www.043w.or.kr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302호

충북사회복지
CHUNGBUK SOCIAL WELFARE

도서출판 유 한 사
28505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85 (우암동 224-6)
TEL:(043)255-0504, 253-0504 FAX:(043)222-0504
H.P: 010-9566-0504 E-mail : youhansa@daum.net
각종교육교재 책자제본·스프링제본 칼라복사·칼라출력 대형코팅·현수막출력 대형출력·도면복사
무인 프린트카페 청주대정문점 / 충북대점 / 청주대점 365일 24시 무인복사기 복사스캔 출력팩스

제 311호 대표전화 043)234-0840 2025년 3월 31일 〈월요일〉

| 기관돋보기 | 옥천군노인복지관

청춘이 피다! 옥천군노인복지관

노인이 단순한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돕는 복지관이 있다.

옥천읍에 위치한 옥천군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복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선배시민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주민 조직화 사업을 통해 지역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밥상'과 '사계절 도시락',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어르신들을 위한 '월간 생일상'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울러, 사회적 단절이 심한 남성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신체 · 정서 · 사회적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전영역 A 이상의 등급을 받는 등 지역사회와 협력해 모범적인 노인복지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편집자주〉

옥천군노인복지관 전경.

돌봄을 넘어 지역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관
무료급식부터 정서 지원까지… 맞춤형 복지 실현

옥천군노인복지관(관장 오재훈)은 2003년 전국 최초로 노인 · 장애인 통합복지관으로 문을 열어 20년간 운영되어오다 지난해부터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이 분리 운영되기 시작했다.

복지관의 새로운 비전인 '청춘이 피다, 옥천군노인복지관'을 내세우며,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다시 청춘을 맞이하고 새로운 인생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돌봄, 건강생활 지원, 노년기 사회화 교육, 자원 개발 및 조직화, 사회참여 활성화와 권익 증진 등이 있다.

특히,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복지자원으로 활용하는 주민 조직화 사업과, 어르신들이 돌봄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존중받으며 활발히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선배시민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5년 현재 복지관 회원 수는 약 1만1280명이며, 하루 평균 4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주로 건강생활 지원 및 노년사회화 교육 강좌에 참여하거나 경로식당(무료급식)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으며, 자원봉사 및 지역 조직화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도 약 150여 명에 이른다.

옥천군노인복지관은 단순히 노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복지 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장을 마련하며,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먼저,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단절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월간 생일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18곳의 지역 단체와 개인이 이 사업에 참여하여 매월 어르신들을 위한 생일상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기본적인 식사를 제공하고자 '나눔밥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경로식당을 통해 무료점심을 제공하는 이 사업은 회당 약 500여 명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누구나 차별 없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주로 집에서 생활하며 사회적으로 단절된 어르신들을 위해 '사계절 도시락'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 단체와 연계하여 정성껏 만든 도시락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회당 약 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지원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성 독거노인의 신체적 · 정서적 · 사회적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생명 숲 힐링센터'를 운영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쓰고 있다.

2019년부터 외부 공모사업을 통해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여성 독거노인보다 사회적 단절과 경제적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남성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매년 3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하여 일상생활 자립 능력, 사회성, 신체 건강 등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사전 · 사후 평가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실시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의 다양한 인적 · 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보다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재훈 관장은 "정부의 복지 정책과 법률이 변화함에 따라 복지관 운영 방식도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며 "다양한 수혜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고민하고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관이 지역사회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복지서비스를 널리 알리는 것은 대상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에게 중요한 부분"이라며 "특히 지역 주민들의 후원과 봉사 참여는 복지관 운영과 서비스 개선에 큰 도움이 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옥천군노인복지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더욱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옥천군노인복지관 직원 단체사진.

옥천군노인복지관 개관 20+1주년 기념행사.

충북사회복지협의회는 19일 청주 용정동에 위치한 S컨벤션에서 창립 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행사 개최

40년 발자취 새로운 미래 향한 도약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응모, 이하 협의회)는 19일 오전 11시, 청주 용정동에 위치한 S컨벤션에서 창립 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협의회의 지난 4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지속 가능한 100년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1985년 설립된 협의회는 충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며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협의회 임직원 및 관계자 약 12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함께 걸어온 40년,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에 서다'라는 슬로건 아래 영상물 감상, 공로패 및 감사패 전달, 그리고 40주년을 기념하는 떡케이크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공로패는 협의회 발전에 기여한 역대회장 5명에게 증정되었으며, 그간의 노고를 기리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이어진 감사패 전달식에서는 협의회의 지속적인 성장에 일조한 장기회원 6개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응모 회장은 "협의회가 40년 동안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함께 노력해주신 많은 분들의 헌신과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사회복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 전국 첫 '디지털 임신증명서' 발급

모바일 앱 '마미톡' 탑재… 임산부 혜택 더욱 손쉽게 이용

충북도가 3월부터 '디지털 임신증명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내 임산부는 기존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 등 서류를 통한 임산부 증명의 번거로움 없이 간편한 '디지털 임신증명서'를 통해 도가 제공하는 각종 임산부 우대 혜택을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도내 임산부는 앞으로 '디지털 임신증명서'를 통해 도내 162개 시설의 임산부 우선창구, 전용 주차구역 등 임산부 패스트트랙과 청남대 무료입장, 조령산 휴양림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 방법은 도내 분만 산부인과를 통해 '마미톡'에 가입된 임산부는 앱에 접속 후 즉시 '디지털 임신증명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받은 증명서는 임신 진단일로부터 분만(예정)일 후 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도는 '마미톡' 앱 내에 충북형 임산부 전용 앱 서비스인 '맘 편한 충북' 카테고리도 구축해 충북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임신 · 출산 지원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수민 정무부지사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디지털 임신증명서를 통해 도내 임산부들이 전보다 더 편리하게 임산부 우대 혜택을 제공받고, 임산부 밀착형 전용 모바일앱으로 좀 더 체감도 높은 임신 · 출산 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충북도는 임산부를 국가유공자로 대우하고자 2023년 12월 전국 최초로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 ·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행안부 주관 우수 적극조례 '대상'에 선정된 바 있다.

'사회복지 정보제공 서비스' 신청 안내

■ 발송횟수: 주 3회(문자서비스)
■ 발송내용: 도내 사회복지 행사 안내·유관기관 공모사업 제공
■ 발송대상: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
■ 신청기간: 상시접수

문자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청주시,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장려수당 대상 확대 ·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

청주시는 이범석 시장의 민선 8기 핵심공약이었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공약이 100% 달성됐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장려수당 대상 확대, 3종 휴가제 도입과 대체인력사업 추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심리상담 · 법률자문 제공 등 복지종사자의 보수수준과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해 목표했던 공약은 모두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보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외되는 집단이 없도록 포괄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되 열악한 시설을 먼저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이에 2023년 보수 수준이 열악한 여성피해지원시설 12개소에 인건비 1억5800만원을 추가 지원했다.

아울러 장려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했다. 장려수당은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상근종사자에게 매달 7만원씩 지급돼왔다.

시는 2023년 조례를 개정해 개인 및 단체운영시설 종사자 및 사회복지시설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종사자도 대상에 포함했고, 충북 도내에서는 최초로 시행한 조치다.

그 결과 기존 241개소 1785명에서 49개소 203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으며, 혜택은 2023년 7월분부터 소급 적용됐다.

여기에 추가로 자녀돌봄휴가(연 2일), 장기근속휴가(5~10일), 건강검진휴가제도 등 3종 휴가제를 2023년 3월 도입하고, 사회복지종사자 휴가제 도입에 따른 업무공백 해소를 위해 대체인력지원 사업을 2024년 3월부터 추진했다.

휴가, 교육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으로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대체인력 5명(상근 1명, 단기 4명)을 모집해 2024년 96건 262일을 지원했다.

또한 상해로 인한 사회복지종사자 의료비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충북 도내에서 유일하게 상해보험 단체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2024년 3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상해보험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시가 상해보험 가입 본인부담금 1만원을 지원해주고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올해부터는 사회복지종사자에게 보수교육(직무향상교육) 비 5만6000원 전액을 지원한다.

사회복지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자 '전국단위' 확대

1 · 2차 응모자 없어 3차 공모… 개관 2개월 늦춰

제천시가 '공공산후조리원' 민간 위탁 운영자 찾기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 2월 두 차례에 걸쳐 공공산후조리원 수탁기관 모집을 했지만 지원자가 나서지 않았다. 다급해진 시는 세 번째로 이달 7일 3차 모집공고를 내고 위탁자를 기다리고 있다.

당초 시는 1, 2차 모집에서 지역 내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업체를 수탁기관으로 한정했지만 3차 모집에서는 위탁 지원 자격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충북 첫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한 시는 오는 5월부터 모든 준비를 마치고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위탁자를 찾지 못해 개관을 2개월 늦춰 7월로 연기한 상태이다.

하소동에 건립된 산후조리원은 사업비 69억원을 들여 연면적 1375㎡에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조리원에는 13개실의 모자동실, 신생아실, 수유실, 휴게실, 식당, 가족 카페, 피부관리실 등으로 구성됐다.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조감도.

시는 위탁자 모집 범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 만큼 운영자 선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A 의원은 "위탁자 모집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다"면서 "2개월을 늦춘 만큼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시가 올해 책정한 위탁사업비는 9억3500만원(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산모가 지불하는 이용료는 세외수입으로 처리된다.

음성군,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복지 확대

청년 · 노인 · 장애인 등 지원책 강화

음성군은 사회적 약자가 잘 지낼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복지정책을 촘촘히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저출생 ·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군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해법으로 청년 유입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군은 민선 8기가 끝나는 내년 상반기까지 8조5000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1만3000명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민선 8기 동안 LG생활건강, 유한양행, 일양약품, 더블유씨피 등 우량기업을 유치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음성군 청년센터 '청년대로'에서는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청년 창업과 자격증 취득 응시료, 면접 수당을 지원한다.

청년 창업 지원사업은 타지역 거주자도 지원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음성군 전입을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지원금은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로, 자부담 50%는 필수다. 면접 수당과 자격증 취득은 1인당 각각 15만원,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최대 15만원, 1년 최대 180만원의 주택 월임차료를 지원한다.

또한, 군은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인복지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1만7000명에게 556억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경제와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29개 사업에 153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올해는 경로당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어르신들의 여가와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경로당 427개소(미등록 경로당 포함)를 대상으로 신 · 증축과 개보수, 공기청정기 등 경로당 맞춤형 장비 지원과 경로당 대표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아울러, 장애인 보호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발맞춰 통합 시설을 신설한다. 지역에 산재해 있는 장애인 단체와 시설을 통합하고 열악한 장애인 시설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를 반영해 음성군장애인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한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유응모 사회복지 출판 · 홍보위원장 박 상 준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bbokji043@naver.com 홈페이지 : www.043w.or.kr

단양군은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착공식을 개최했다.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 착공

케이블카 · 미디어아트터널 등 조성… 지역경제 활력

단양군은 관광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첫 삽을 떴다고 3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한 대규모 프로젝트인 이번 사업은 총 680억원 규모로 단양역에서 심곡터널까지 이어지는 1.7㎞ 구간에 케이블카와 미디어 터널, 주차장, 전망 카페, 호텔 등 관광 · 휴양 복합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관광객 유치에 그치지 않고 체류형 관광지로의 전환을 목표로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단순한 관광지 개발을 넘어 지역 상권과의 연계, 일자리 창출, 관광객 체류시간 증대 등 다양한 파급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 재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이 출자하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난해 단양군이 전국 1호 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정부는 이 펀드 금융기법을 통해 총 3조원 규모의 지역 투자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3월 사업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자펀드 자산운용사 선정,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와의 여러 차례 컨설팅을 거쳐 사업 추진 기반을 확립했다.

투자 펀드 공모에 선정된 이후 군 관리계획 승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인허가 완료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한다.

사업은 2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2026년 3월 완료 예정)에서는 케이블카 및 VR · 메타버스 기반 미디어 터널 조성이 조성된다.

이어 2단계(2027년 3월 완료 예정)에서는 150실 규모의 호텔과 추가 관광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도 이번 사업이 상권 활성화와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다면 연간 관광객 98만 명 증가, 체류 인구 54만9000명 확대가 전망된다.

또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고 로컬상점 운영 등을 통해 지역 경제와의 상생 모델을 구축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동력으로 삼을 방침이다.

단양군, 관광객 맞춤 지원 강화로 관광 활성화

10인 이상 단체에 1인당 2만원 경비 지원

단양군은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1인당 최대 2만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10인 이상 단체 관광객을 모집한 여행업 등록 여행사가 지원 대상이다. 관광지 방문과 음식점 · 숙박업소 이용 등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경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광지 2곳과 음식점 1곳을 방문한 당일 관광은 1인당 1만원, 1박 관광은 관광지 4곳과 음식점 2곳을 방문할 경우 1인당 2만원을 지급한다. 인센티브 지급 대상 여행사는 여행 7일 전까지 사전계획서와 일정표를, 여행 완료 후 20일 이내에 지급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우편으로 각각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군은 올해부터 '단양 시티투어' 관광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A코스(토)와 B코스(일), 1박 2일 코스로 구성했다. 이용 요금은 코스별 2만원이며 예약은 매주 수요일 마감한다.

버스를 이용해 단양강 잔도, 만천하 스카이워크, 도담삼봉, 구경시장, 남한강 갈대숲, 온달관광지 등 지역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다. 1박 2일 코스에는 수양개 빛터널과 이끼 터널 투어를 포함했다. 1대당 10만원인 택시투어도 함께 시작했다. 택시 투어 코스는 버스투어 코스와 동일하며 이용 예정일 사흘 전까지 단양군관광지질협의회로 예약해야 한다.

충주시, 저소득층 냉난방 환경 개선 지원

200여 가구 에어컨 · 보일러 설치비 등

충주시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한국에너지재단과 함께 저소득층의 벽걸이 에어컨 설치와 단열 · 창호 · 바닥 시공, 노후 보일러 교체 등 비용을 지원한다.

냉방사업은 72가구에 가구당 72만원을 지원하고, 난방사업은 134가구에 가구당 평균 243만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가구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가구(수선유지급여 대상),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같은 사업의 수혜 기간(냉방 8년, 난방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불법 건축물 거주 가구 등은 제외된다.

냉방사업은 오는 4월 18일까지, 난방사업은 별도로 사업 종료를 안내하기 전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최정희 신성장산업과장은 "물가 상승과 연료비 증가로 에너지 취약계층이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맛있는 나눔, 사랑의 실천" 푸드뱅크가 함께합니다.
모두와 손잡고 나눔의 세상을 만듭니다.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기부 식품군	모집가능기한
가공식품	제과류	스낵, 사탕, 껌, 초코렛 등	최소 30일 이전
	즉석식품	면류(라면, 소면, 스파게티 등), 즉석밥, 죽 등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케익, 비닐포장, 스테이크 등	
	통조림	참치, 장조림, 과일통조림 등	
장류 및 식용류	장류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	최소 30일 이전
	소스류	드레싱, 고기양념류 등	
	기름류	식용류, 참기름 등	
음료류		쥬스, 탄산음료, 멸균우유, 건강음료(홍삼) 등	최소 30일 이전
신선식품	육가공류	핫바,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최소 7일 이전
	농산물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제빵류		각종 슈퍼마켓, 제과점 빵류	최소 3일 이전 (제과점은 판매당일)

생활용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종류	모집가능기한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최소 90일 이전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최소 60일 이전
휴지류	화장지	최소 60일 이전
	물휴지	최소 90일 이전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최소 60일 이전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최소 60일 이전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최소 90일 이전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최소 60일 이전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최소 60일 이전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최소 60일 이전
	가정용 살충제	최소 90일 이전

기부혜택
기업 및 개인이 푸드뱅크·마켓에 식품·생활용품을 무상으로 기부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100%~10% 범위 내에서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충북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충북광역푸드뱅크)

기부방법
043) 234-1377
광역 대량 기부

전국 어디서나
1688-1377
지역 소량 기부

옥천군, '최중증장애인 권리 중심 일자리 사업'

맞춤형 일자리 제공… 4월부터 참여자 활동 시작

자립생활센터 이용자들이 옥천군 사업 추진을 응원하고 있다.

옥천군이 장애계의 숙원이었던 '충북형 최중증장애인 권리 중심 일자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충북형 최중증장애인 권리 중심 일자리 사업은 고용시장 참여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 참여와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수행기관으로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임경미)를 선정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27년 12월이다.

3월 중 전담 인력과 참여자 모집을 거쳐 4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군은 2023년 9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의 협의를 통해 최중증장애인 권리 중심 일자리 도비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이후 시장군수회 안건 제출 및 충북도 일자리 지침 개정 건의 등을 통해 충북도 담당 부서에 권리 중심 일자리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숙원사업이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옥천군은 최중증장애인 참여자 10명과 전담 인력 1명을 지원하며, 약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참여자들은 문화예술활동, 장애 인식개선 활동, 권익옹호 활동 등 다양한 직무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황규철 군수는 "우리 군 장애계의 숙원이었던 최중증장애인 권리 중심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최중증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립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괴산군, 청년고용률 상승으로 지역 경제 활력

고용률 48.3%, 전년보다 8.1%p 상승

괴산군이 청년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청년 고용률이 크게 상승하며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시군구) 결과에 따르면, 괴산군의 청년(15~29세) 고용률은 48.3%로 전년(40.2%) 대비 8.1%포인트 증가했다.

괴산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청년이 머물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맞춤형 취·창업 지원 정책이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며 고용률 상승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군은 청년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해 청년 취업자 및 청년 농업인 주거비 지원,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며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청년 배움 정책을 통해 미취업 청년에게 자기개발비를 지급하고, 청년 인턴제, 청년 창업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취·창업 기회를 확대했다.

특히, 청년 농업인을 위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며 청년층의 농업 분야 진입도 적극 장려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 결과적으로 고용률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괴산군 관계자는 "청년층의 고용률이 크게 증가한 것은 지역 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얻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천군, 2024년 합계출산율 1.12명…충청권 1위

합계출산율 2.0명 목표로 '마하2.0+'프로젝트 추진

진천군 합계출산율 인포그래픽.

진천군의 합계출산율이 0.209명 증가해 인구 증가의 질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진천군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1.12명으로 전년 0.911명 대비 0.209명이 증가했다.

이는 충북 도내와 충청권 1위로 같은 기간 전국 합계출산율은 0.75명(+0.029명), 충북은 0.88명(-0.006명)으로 집계됐다.

군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0.911명에서 1명대로 회복하는 것을 넘어 전국 시·군·구 중 상위 30위권에 진입하게 됐다.

출생아 수 결과도 눈에 띈다. 진천군은 2024년 500명을 기록해 전년 411명 대비 89명이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21.65%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기준 전년 대비 8272명이 늘어 23만 8300명을, 충북은 80명이 줄어 7500명을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는 18년 연속 인구가 늘고 있는 진천군의 인구증가의 질적 수준을 가늠케 한다.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통한 인구 전입뿐만 아니라 출산율 증가로 인한 자연 증가분이 더해진 건강한 인구성장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양적성장으로 이룬 경제적 기반 아래 쾌적한 주택공급,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구현하고자 했던 군의 정책이 맞아떨어져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군 단위 최초로 저출생·고령사회 정책 지원 조례를 제정해 다양한 분야에서 선제적인 출생 지원 정책을 펼쳐온 점도 출산율 증가에 힘을 보탰다.

군은 지속가능한 인구구조 확립을 위해 젊은 세대를 겨냥한 수혜자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출산·양육·보육·교육을 실현하는 '마하2.0' 프로젝트를 추진해 합계출산율 2.0명을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위수탁 협약 체결

최재형(오른쪽) 보은군수와 임기순 나누미장애인복지회 대표가 지난 12일 군청에서 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위·수탁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나누미장애인복지회서 5년간 운영

보은군은 지난 12일 군수실에서 나누미장애인복지회(대표 임기순)와 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위·수탁을 협약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나누미장애인복지회는 다음 달부터 2030년 3월까지 5년간 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한다.

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에게 직업 적응 능력과 직무기능 향상을 위한 장애인작업훈련, 재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한편 장애인 보호 고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다.

장애인 직업 재활 훈련사업의 하나로 추진했던 제빵소 '본빵'이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쓰인다.

나누미장애인복지회는 앞으로 제품 품질 향상, 신제품 개발, 판로 확대 등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훈련장애인과 근로 장애인을 신규 모집해 장애인의 자립 도모와 취업 기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최재형 군수는 "직업재활시설인 장애인보호작업장을 통해 우리 지역 장애인들의 사회적 응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장애인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활동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영동군, 집중 안전점검 '주민 신청제' 운영

안전한 환경 조성… 내달 30일까지 접수

영동군은 '2025년 집중 안전 점검'을 앞두고 안전관리 사각 지대 해결을 위해 '주민 점검 신청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주민 점검 신청제'는 주민이 직접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을 군에 신청하면,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합동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점검 결과는 신청인과 시설 관리 주체와 공유한다.

점검 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 건축물 등 공공·민간 분야의 소규모 생활밀접 시설이다. 다만 공사 중이거나 소송·분쟁 중인 시설물 등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정 시설은 집중 안전 점검 기간인 다음 달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건축·토목·전기·가스·소방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합동 점검을 받는다.

군은 같은 기간 군내 건축물, 숙박시설, 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 사고 발생 우려 시설을 대상으로 관련 기관,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합동 집중 안전 점검도 할 계획이다.

신청은 다음 달 30일까지 안전신문고 앱·포털을 통해서 하거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하면 된다.

증평군, '찾아가는 전입신고 부스' 운영

증평군-한국교통대 인구증가 협력

한국교통대 증평캠퍼스 학생들이 증평군에서 운영하는 '전입신고 부스'를 찾아 상담하고 있다.

증평군은 대학생들의 주소 이전을 독려하기 위해 10일 한국교통대학교 증평캠퍼스 청아홀에서 '찾아가는 전입신고 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학업으로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학생들은 이날 전입신고 부스를 찾아 편리하게 주소이전과 전입지원금을 신청했다.

군은 이 자리서 다양한 인구·청년정책 홍보와 함께 전입혜택을 안내하며 대학생들의 전입을 적극 유도했다.

군은 인구증가를 위해 전입세대 대상 전입축하금(1인 5만원 지역상품권), 지역시설 무료이용쿠폰 제공, 지역대학교 재학생·직업군인(군무원) 전입지원금(1인 2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실거주 미전입자들이 증평군민이 되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사업을 안내하면서 전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면	규격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 x 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 x 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 ~ 7면	4단 (360mm x 138mm)	흑백	200,000
8면	4단 (360mm x 138mm)	컬러	250,000
	세로포스터 (150mm x 195mm)		

게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충북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 시민단체, 병원, 학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일반시민 등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은 적극적으로 충북사회복지신문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세나 사회복지사 (T.043-234-0840~2)

복지관·양로시설 680개소 중 71.5% A등급

2024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680개소의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4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유형별로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업무는 중앙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고 있다.

2024년에는 사회복지관 287개소, 노인복지관 240개소, 양로시설 153개소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운영에 대해 평가했다.

다만,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은 코로나19로 평가가 유예된 바 있어 최근 2년간 운영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안정적인 시설 운영 여부, 서비스의 질적 수준 등을 점검하고자 5개 평가영역을 기준으로 이루어졌고, 총점에 따라 동일한 시설유형별로 5등급(A~D, F등급)을 부여했다.

2024년 평가결과 전체 시설 중 71.5%인 총 486개가 A등급(우수시설)을 획득하고, 51개소(7.5%)는 F등급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사회복지관 236개소, 노인복지관 176개소, 양로시설 74개소가 A등급을 받았다.

지난 평가와 대비하여 A등급(4.5%p), F등급(1.4%p)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대신 B등급(5.0%p), C등급(0.6%p), D등급(0.2%p)이 증가했다.

2024년부터는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엄격한 기준으로 재정 영역 평가를 실시했다.

각 시설이 보조금 외에 자체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기존 평가 방식을 개선한 결과, A등급 시설 비율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정 평가기준의 상향은 각 시설의 자체 사업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시설이 이용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지난 평가에서 미흡등급(D, F등급)을 받은 시설(56개소)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이번 평가에서는 해당 시설들의 평균 점수가 16.0점(2021년 50.8점 → 2024년 66.8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가결과가 미흡등급인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이번 평가에서 점수가 낮은 시설의 품질 개선을 위해 역량강화교육(평가영역별 C등급 이하) 및 맞춤형 컨설팅(D, F등급)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가점수가 상위 5%에 해당하는 우수시설과 지난 평가 대비 평가점수 상승 폭이 상위 3%인 개선시설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 사회복지시설평가 누리집(http://eval.w4c.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패스 10개월 만에 300만명 돌파

월평균 1만8000원 환급… 이용자 중 92.4% '만족'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작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K-패스 이용자가 지난해 8월 200만명 이른 뒤 다시 7개월 만에 3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월 최대 60회까지(1일 2회 제한)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준다.

지난해 K-패스 이용자들은 월평균 대중교통비 6만8000원 중 1만8000원을 환급(26.6%)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과 저소득층은 월평균 각각 2만원, 3만7000원을 환급받아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K-패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자 중 92.4%가 K-패스에 대해 '만족'하다고 응답했다.

이용자들은 K-패스에 대한 장점으로 교통비 절감, 알뜰교통카드 대비 편리성 증대, 지자체 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K-패스 확장성 순으로 응답했다.

K-패스는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에 힘입어 사용 가능지역과 서비스의 범위 등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K-패스 환급률.

우선, 지난해 5월 도입 이후 적용 지자체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1월 기준 210개 기초 지자체에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다자녀 가구에 대한 두터운 지원강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일반(20%), 청년(30%), 저소득(53.3%) 유형에 추가로 다자녀 가구 유형(2자녀 30%, 3자녀 이상 50%)을 신설해 별도의 환급률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앞다투어 K-패스 혜택을 기반으로 지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해 맞춤형 혜택을 부여하는 지자체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하고 있다.

원활하게 K-패스 환급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카드 미발급자 대상으로 앱 또는 누리집에서 K-패스 카드를 발급받도록 행동유도창을 신설하고, 이용자들이 K-패스 앱에서 알기 쉽게 카드별 추가 혜택 및 한도 등을 볼 수 있도록 카드 페이지를 개선할 예정이다.

고독사 막는 '이웃연결단' 매뉴얼 배포

누구나 참여 가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 5일 지역사회 민간 인력(이웃연결단)의 활동 가이드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이웃연결단 활동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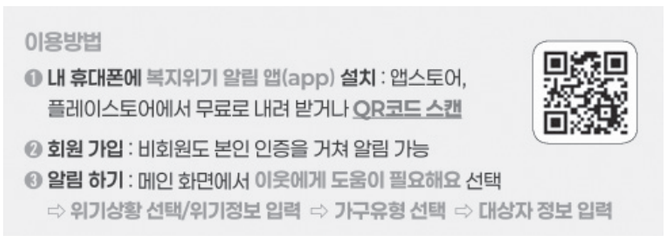
이웃연결단은 일상생활 속에서 주변의 사회적 고립 가구를 사전에 발굴하고 정기적 안부 확인 등 관계 맺기를 지원하여 더 이상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지역 주민 활동 조직을 의미한다.

이웃연결단의 명칭은 작년 12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 관련 명칭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다.

지역과 이웃에 관심이 많고 지역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주민이라면 이웃연결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과 접촉이 많은 편의점, 공동주택관리자 등의 종사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웃연결단에 참여하려는 경우 거주지 시·군·구청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이웃연결단 활동 매뉴얼은 지방자치단체 이웃연결단의 주요 역할을 안내하고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이웃연결단의 개요, 예방 및 관리 사업 설명, 이웃연결단의 주요 역할별활 동 내용, 활동 시 주의사항, 필요 서식으로 구성됐다.



복지위기 알림 앱 이용방법 및 QR코드.

이에 더해 현장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요약한 핸드북도 함께 배포됐다.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매뉴얼이 고독사 위험 징후를 보이는 가구를 발견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복지부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 위험에 놓여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7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월 20만원 지급 예정

여성가족부는 올해 7월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시행을 앞두고 오는 4월 21일까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이다.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6월 중 고시할 계획이다.

개정령안에서는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에 한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보내지 않은 경우다.

그 외 양육비를 비정기적 또는 일부 소액 지급했더라도 선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고시로 별도 제정할 예정이다.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요건은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한 경우 외에도 개별적으로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등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등의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로 폭넓게 규정했다.

양육비 회수를 위해서는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에게 정기적으로 회수사유·금액 등을 담은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를 송달한다.

따르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하고, 미납 시 강제 징수한다. 이를 위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 국세·지방세, 토지·건물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 소득·재산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올해 저소득 가구 고효율 냉·난방기 등 교체 지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내달 18일까지 접수

산업통상자원부는 건물 단열 시공과 고효율 냉·난방기기 등 물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2025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자체별 운영 중인 복지사각지대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이다.

지원 내용은 단열 및 바닥 공사, 창호교체, 고효율 보일러 지원 등 난방지원사업과 고효율 에어컨을 지원하는 냉방지원사업이 있다.

올해는 이 사업에 1076억원을 투입해 난방지원은 3만6000가구와 250개 시설을 지원하고 냉방지원은 1만8000가구와 500개 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방식은 신청 가구와 시설별 지원단가 내에서 시공과 물품이 지원될 예정이며 별도 자부담은 없다.

신청은 지난 5일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있으며 냉방지원사업은 내달 18일까지, 난방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때까지 신청받을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와 달리 사업 간 시너지를 높이고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냉방지원사업 신청기간 중에는 냉방지원사업과 난방지원사업을 통합 신청받을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콜센터(☎1670-7653)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스터.

'청년 문화예술패스' 5월 31일까지 신청

발급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올해 19세가 되는 2006년생 청년에게 최대 15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6일부터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 받으면 국립극단 등 11개 국립 예술단체와 공연시설에서 관람권 할인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인터파크' 및 '예스24'에서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인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을 공식 누리집(youthculturepass.or.kr)에서 신청받는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소득과 관계없이 올해 19세가 되는 국내 거주 2006년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발급한다.

지역별로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고 청년들은 발급받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를 뮤지컬, 클래식, 콘서트 등의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다.

발급 기간은 6일부터 5월 31일까지며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위촉기준
vms 가입되어 있으며,
2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한 단체

봉사단 혜택
활동재료 지원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관리
봉사활동 연계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복지정보과 박 민 정 코디네이터 전화) 043-234-0840

영동군 매곡면에 위치한 장척문화재단이 지난 5일 장학생과 출산가정 등 11명에게 장려금을 지원했다.

장척문화재단, 이웃사랑 실천 '눈길'

지역인재 양성 위해 학생 10명 장학금
출산가정 1가구에 출산 장려금도 전달

영동군 매곡면에 위치한 재단법인 장척문화재단(이사장 이창운)이 지역 인재 양성과 출산 장려를 위해 장학금과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장척문화재단은 지난 5일 영동군 매곡면사무소에서 장학생과 출산가정 등 11명에게 모두 1750만원을 지급했다.

이날 고등학생 4명에 각 50만원, 대학생 6명에 각 200만원의 장학금을, 출산가정 1가구는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았다.

특히 민간 재단의 출산장려금 지원은 지역사회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보기 드문 사례로 꼽힌다.

재단은 매곡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분기별로 1인당 10만원의 '튼튼히 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달 영동군에 주소를 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신청서를 받아 이사회 심의를 거쳐 장학생 10명과 출산가정 1가구를 선정했다.

장척문화재단은 영동군 매곡면 장척리에서 태어난 이병선(92) 전 한일은행장과 부인 최길순(93)씨가 지난 2006년 사재 10억원을 출연해 설립된 재단이다.

2008년 2억원, 2013년 3억원을 추가 출연해 현재 15억원의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창운 이사장은 "이번 장학금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학생들과 지역 주민에게 희망과 행복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괴산군자원봉사센터는 13일 괴산문화예술회관에서 '2025년 온기나눔 자원봉사 릴레이 출발식'을 개최했다.

괴산군자원봉사센터, 온기나눔 릴레이 출발

1년간 100개 단체 참여 봉사
'첫 주자' 괴산읍자치봉사회

괴산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규서)는 지난 13일 괴산문화예술회관에서 '2025년 온기나눔 자원봉사 릴레이 출발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발식에는 송인헌 괴산군수를 비롯 김낙영 괴산군의회 의장, 김춘수 괴산문화원장, 이한배 괴산군사회단체장협의회장, 이규서 괴산군자원봉사센터장과 릴레이 봉사에 참여하는 100개 기관 ·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온기나눔 자원봉사 릴레이'는 괴산군 100개 기관 · 단체가 1년 내내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가는 봉사활동 프로젝트이다. 릴레이의 첫 주자는 '괴산읍 자치봉사회'(회장 김경분)가 선정됐다.

송인헌 군수로부터 릴레이 깃발을 전달받은 괴산읍 자치봉사회는 이달 17일 환경정화 활동을 시작으로 릴레이 봉사활동의 첫 걸음을 시작했다.

송인헌 군수는 "100개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따뜻한 봉사의 손길을 이어가는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릴레이를 통해 괴산군 곳곳에 나눔과 봉사의 바람이 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내덕노인복지관, 디지털 역량강화 'ICT 해피에이징' 개소

AI 건강관리 · 맞춤 교육 제공

청주내덕노인복지관은 대강당에서 'ICT 해피에이징' 개소식을 개최했다.

청주내덕노인복지관(관장 길혜정)은 12일 'ICT 해피에이징' 개소식을 열고,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공간으로 거듭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 이일우 SK하이닉스 부사장, 윤주희 하트-하트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해 300여명이 참석했다.

'ICT 해피에이징'은 최신 컴퓨터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비롯해 AI 기반 건강관리, 키오스크 체험, NBS 실버방송국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청주시 내 5개 노인복지관 중 가경(2023년), 서원(2024년)에 이어 세 번째로 조성됐으며 SK하이닉스의 후원금을 포함, 총 1억3300만원이 투입됐다.

지난해 7월 착공해 최근 완공된 만큼, 어르신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디지털 교육과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길혜정 관장은 "어르신들이 디지털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청댐노인복지관, 노인복지대학 입학식 열어

다양한 학습 · 활동 지원

대청댐노인복지관은 지난 4일 노인복지대학 입학식을 진행했다.

대청댐노인복지관(관장 김현조)은 지난 4일 2025년 보은군 회남 · 회인면 노인복지대학 입학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청댐노인복지관은 보은군 회남 · 회인면 65세 이상 어르신 70명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건강 · 교양 · 여가 총 37회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께 다양한 학습과 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 입학식에는 입학생과 최재형 총장, 박흠인 학장을 비롯한 면내 기관단체장들과 운영위원들이 참여하여 입학을 축하했다.

김현조 관장은 "입학생들의 대학생활을 더욱 즐겁고 뜻깊게 만들기 위해 정성을 기울이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대청댐노인복지관은 대청댐 주변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종합적인 복지증진을 지원하고자 케이워터나눔복지재단이 설립 · 운영하고 보은군이 운영 · 지원한다.

충주시립노인요양원 개원 2주년 '스마트요양원 자리매김'

양질의 돌봄서비스 '호응'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증가와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발맞춰 건립한 충주시립노인요양원(원장 이상권)이 개원 2주년을 맞이했다고 4일 밝혔다.

산척면에 있는 충주시립노인요양원은 첨단 스마트 기술과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도입하며 어르신과 보호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으며, 현재 입소율 100%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26일, 6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운영을 시작한 요양원은 현재 110명의 어르신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상권 원장을 비롯한 57명의 직원이 '어르신이 존중받으며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충주시시립노인요양원 전경.

요양원은 치매전담형 시설로서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법정 기준보다 약 20% 많은 요양 인력을 배치해 세심한 돌봄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다. 특히 최첨단 스마트 돌봄 시스템을 도입해 어르신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작년 5월부터 낙상 감지기를 설치해 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기저귀 교체 시기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스마트센서 기저귀를 활용해 피부질환과 요로 감염 등의 위험을 최소화했다.

또한, 모든 침대에 호출 벨을 설치해 어르신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도 강화됐다.

물리치료실에서는 온열치료기, 찜질기, 전기치료기, 자전거, 수치료기 등을 활용한 치료가 이루어지며,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생활실 방문 치료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뼈가 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물 침대식 마사지기(수치료기)는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상권 원장은 "모든 직원이 어르신들의 마음까지 보살핀다는 마음가짐으로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요양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 실버인지놀이 지도자 2급과정 운영

내달 17일까지… 22명 참여
노인 정신 · 육체 건강 책임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는 주민복지대학 프로그램으로 실버인지놀이 지도자 2급 과정을 운영한다.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손광영)는 올해 주민복지대학 프로그램으로 실버인지놀이 지도자 2급 과정을 다음달 17일까지 운영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문제 해결 방법을 고민하며 노인성치매 진행을 늦추고 어르신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책임지는 지도자 양성 과정이다.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생 21명 중 19명이 자격을 취득했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현재 현장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는 교육생 22명이 참여해 이론과 실습 과정을 통해 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예정이다.

손광영 회장은 "교육생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노인의 삶을 이해하며, 좋은 이웃과 친구로 함께하길 원하고, 지역 노인시설에 외부 강사가 아닌 인적자원을 활용한 실버인지놀이 활동이 여러분들 통해 이루어지길 응원한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는 2004년부터 해마다 1~3급 미술심리치료사, 스피치, 도형심리, 진천군지킴이 양성 등의 과정을 개설해 주민복지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복지 유관기관 정보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유복지플랫폼
'충북복지넷'
www.043w.or.kr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올해 늘봄학교 초등 2학년까지 확대

유보통합 추진 · 영유아학교 시범운영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신규 운영 등

교육부는 교육개혁 9대 과제의 지속 추진을 통해 사교육 경감을 도모하고 정책 효과의 안정적인 확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사교육 경감 모델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 할 예정이다.

추진방향은 ▲ 기존 도입된 정책의 안착 및 확대 ▲ 본격 도입되는 정책의 적극 추진 ▲2025년 신규 정책 추진 ▲ 지역과 함께하는 사교육 대응체계 확립으로 총 4가지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방과 후 수업이 끝난 초등학생들의 모습.

■ 기존 도입된 정책의 안착 및 확대

늘봄학교 확대 및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2025년 늘봄학교의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 1 · 2학년 모두 늘봄학교 참여를 보장하고 매일 2시간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희망자 전원 참여를 위해 학교별로 프로그램 · 공간 확보, 늘봄지원실장(1200명) 및 늘봄실무인력(6800명)을 배치한다.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강화를 위해 지자체, 지역 대학과 긴밀히 협업하여 학습과 연계된 놀이영어 프로그램 등 학부모들이 희망하는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공급한다.

정규수업 내 체육 교육활동 및 체육 동아리 활동을 늘봄학교에서도 연계 운영하고 체육교육 확대 지원을 추진하여, 모든 학생의 신체활동 참여도 제고와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전국학교 스포츠클럽 축전 및 부총리배 혼합팀 대회도 추진한다.

아울러, 모든 학생에 대한 보편적 예술 활동 및 학생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한 맞춤형 예술활동을 통해 일상 속 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초등 정규수업 내 이루어지는 예술 교육활동을 늘봄학교에서도 연계 운영하여 예술 특기 교육지원 강화와 중등 예술중점학교 운영을 통해 일반 중 · 고등학교 내 예술 심화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 관련 진로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교육부 핵심 추진과제와 연계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및 성과평가에 따른 사업비를 추가 교부하여 핵심 사교육 경감 정책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교육혁신이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도별 특구 운영의 특징을 고려한 성과관리 체계 마련 및 교육발전특구 우수사례의 성과를 공유하고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우수사례 시상을 추진한다.

아울러, 2025년 2차 사교육 부담없는 지역 · 학교 신규 지정 및 지원계획을 수립해 1차 사업 지역 대상 지역별 사교육비 경감률, 학부모 만족도 등을 점검하여 성과 분석 및 우수모델 확산을 위한 성과발표회를 오는 4월에 개최한다.

EBS 콘텐츠 및 기초학력 지원 강화를 위해 EBS 시스템을 활용한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중 · 고등학생의 학습성향과 수준을 AI로 정밀 진단하고, 개인 맞춤형 코스웨어(개념학습-심화학습-최종평가) 및 학습분석 대시보드 등 체계적으로 학습을 지원한다.

또한, 교사-대학생이 멘토로 참여하는 중 · 고등학생 대상 화상 튜터링을 확대하여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한다.

아울러, EBS 중학프리미엄 및 고교강의 콘텐츠 제공을 내실화한다.

교과서, 시중 인기 교재를 기반으로 한 중학교 프리미엄 강좌 확대 및 수준별 수능강의, 학습 · 모평 · 수능 해설 등 고교강좌를 제공하고, 호소력이 높은 EBS 유명강사가 참여하여 중학프리미엄 · 고교강의 콘텐츠 홍보를 강화하여, 학습방법 및 입시정보 등을 제공한다.

■ 본격 도입되는 정책의 적극 추진

체감도 높은 유보통합을 추진하여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확대로 성과를 확산한다.

보다 더 많은 영유아가 상향평준화된 교육 · 보육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영유아 학교 시범사업을 개편한다.

2024년 운영성과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4개 상향 평준화 과제의 '선택 · 집중 · 연계'를 통해 영유아학교 성과를 확산한다.

또한,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지속 해소로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한다.

사교육 없이 발현적 문해력 등을 포함하는 기초역량 함양을 위해 누리과정-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이음교육'을 어린이집까지 확대한다.

교원 역량강화를 위해 4대 중점 분야에 대한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연수 체계를 구축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교원 핵심역량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학부모 수요를 고려한 고품질 콘텐츠를 개발 · 활용한다.

한국과학창의재단 · 대학 등과 협업하여 유아 발달을 고려한 놀이식 창의과학 · 영어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 시범에 적용한다.

늘봄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의 소규모 기관과 늘봄학교를 연계하여 우수한 늘봄프로그램을 공동으로 활용한다.

AI를 통해 학생별 학습 수준과 속도를 진단 · 분석하고, 이에 따른 맞춤 콘텐츠를 제공하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한다.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를 지속 점검 · 개선하고 전담인력 배치 · 양성 및 테크센터(91개소)의 운영을 지원한다.

교원 역량강화를 위해 교사가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해 수업을 혁신하고 학생 맞춤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선도 · 일반교사 연수를 실시한다.

선도 · 연구학원 운영을 위해 AI 디지털교과서 채택교 중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교육 선도 · 연구학교'를 선정하여 맞춤교육 우수사례를 창출한다.

AI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학교의 책임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을 통해 학년 초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AI 디지털교과서 연계 수준별 학습을 추진한다.

책임교육학년(초3 · 중1)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와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면밀한 학습수준 분석 및 교과보충 · 튜터링 연계를 지도한다.

책임교육학년 중심으로 초3 대상 늘봄학교의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에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보충학습을 개설하고, 중1 방과후수업 중 AI 디지털교과서 연계 교과보충 · 튜터링을 운영한다.

다양한 과목 선택 · 이수 지원체제를 안착 및 확대한다.

2025년에는 8개 시도에 온라인학교를 추가 개교하여 모든 시도에서 온라인학교 운영 917개교)을 통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한다.

온라인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 내실화 및 표준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온라인학교 연구학교'를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 학교와 달리, 재학생이 없는 온라인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학교 설립 · 운영의 근거를 6월까지 마련한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협약한 지역대학에서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 개설 준비를 6월까지 완료하여 희망 학생 대상으로 수업을 운영한다.

학교 책임교육 지원을 위해 함께학교 플랫폼 내 마련된 '진로 · 학업 설계 지원 시스템'을 통해 진로 탐색, 과목 선택 및 학습 방법 등에 대한 종합상담을 제공한다.

콘텐츠 제공을 위해 학교에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학생용 온라인 콘텐츠 및 교사용 교수 · 학습자료를 추가 개발하여 핵심교원 연수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현장 운영 상황 모니터링 및 소통 지속 추진을 위해 고교학점제 운영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교원 단체 및 학부모단체 대상 간담회 개최 및 현장 소통을 강화한다.

■ 2025년 신규 정책 추진

2028년 대입제도 개편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학업 자체에 충실하기 위한 고교 내신 평가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2205년 고1부터 내신 9등급제를 5등급제로 개편하여 학생간 과잉경쟁을 해소하고 평가 자체보다 학습에 집중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대입에 필수적인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교 전 과정에 대해 절대평가 등급과 함께 상대평가 5등급을 병기하여 대학에 제공한다.

또한, 절대(성취)평가 안착 및 논 · 서술형 평가 확대 등을 이끌 선도교원을 양성하여 신뢰도 높은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수능 관련 자료 제공을 위해 학생 · 학부모 예측가능성 강화 및 안정적 대입 준비 지원을 위한 2028 수능 예시문항 풀세트를 공개한다.

아울러, 대학 입시컨설팅 제공을 위해 대입상담센터 운영 확대, 현장교사 상담역량 제고, 대화형 AI 기반 컨설팅 도입 등 공공 영역에서의 입시 컨설팅 기반을 강화한다.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를 신규 운영한다.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의 개요는 지방 소도시나 학교 밖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중 · 고등학생들에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센터 내 학습 코디네이터가 학생들의 학습상황 관리 등을 전담하고 외부 연계 멘토링 등을 함께 지원하여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주요 지원내용은 학교 안팎 쾌적한 자기주도학습 공간 제공을 위해 개별 학습이 가능한 열람실 토의 · 과제를 할 수 있는 모둠형 학습 공간 및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실로 구성하되 온라인 학습환경을 조성한다.

EBS 강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교육 없는 학습을 설계하기위해 EB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습수준 진단 및 콘텐츠를 제공하고 보충 학습이 필요한 학생에게 대학생 등을 통한 튜터링 · 멘토링을 실시한다.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활용한 개별 학습 지원을 위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주요 교과목별로 밀착지도해 대학생 멘토링 사업과 연계한다.

또한, 학습 코디네이터를 통한 개별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해 학습 코디네이터가 상주하며 학생들의 수준별 학습상황을 관리 및 지원하고, 교육 · 입시 관련 정보를 안내한다.

■ 지역과 함께하는 사교육 대응체계 확립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사교육 고의존의 문제점과 해결 방향에 대한 학부모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과도한 사교육의 원인과 문제점, 해결 필요성을 기고문 · 공익광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확산하여 사회적 문제의식을 형성한다.

사교육이 필수재라는 인식 해소를 위해 효과적인 자기주도 학습을 실현한 학생 우수 사례를 '함께학교 캠페인' 등을 통해 모집 및 확산한다.

사교육 불안심리 완화를 위한 학부모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일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교육 불안심리와 인식 개선 등 학부모교육 내용을 포함한 직장교육 추친 및 지속적인 소통을 실시한다.

17개 시 · 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역별 학부모를 대상으로 과도한 사교육의 부작용과 자기주도학습 방법 등에 대한 특강을 제공한다.

건강한 자녀 성장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학부모의 자녀 교육관 정립 및 과도한 사교육 방지를 위한 콘텐츠를 온라인 플랫폼에 활용한다.

사교육 경감 우수교육청 지원을 확대한다.

시도별로 사교육 경감을 위해 사교육비 증감 데이터 및 지역 여건에 기반하여 사교육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별 사교육 대책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한다.

사교육 경감을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과 함께 시도교육청의 사교육 경감 노력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평가를 개선한다.

시도교육청 평가 개선을 위해 기존 4개 평가 영역에서 사교육비 경감을 별도 평가영역으로 분리 · 신설하고 대표지표로 설정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한다.

학원비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방학 중 고액 캠프, 무등록 학원, 미신고 원격 과외교습자, 의대 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분야의 지도 · 점검을 강화한다.

지도 · 점검 위반 시 처분은 교육부 · 교육청 공동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여가부 · 복지부 등 부처 협업을 지원한다.

또한, 신고센터 등 제보를 적극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 시 정책 부서와 연계하여 실태분석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유아학원 지도 · 점검 확대를 위해 4세 고시, 7세 고시 등 유아학원의 지나친 마케팅 광고, 초과 교습비 징수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미취학 아동 대상으로 과도한 교습시간, 선행학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 · 도교육청 중심 집중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

〈출처: 교육부〉

복지광장

함께한 40년, 더 나은 복지를 향한 도전

김 창 기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제13~14대 역대회장

존경하는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충북사회복지협의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협의회는 지역사회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협의회의 발자취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충북 지역사회 복지의 발전을 이끌어 온 소중한 기록이며,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 온 과정이었습니다.

1985년 창립 이후 협의회는 지역 내 민간 복지 기관과 공공기관을 잇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각종 복지사업의 연계 · 조정, 자원봉사 활성화, 복지 관련 정책 제언, 복지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충북 지역의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협의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협의회를 중심으로 함께해 주신 많은 사회복지 기관과 단체, 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오신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분들, 그리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후원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협의회의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충북사회복지협의회가 걸어온 40년의 길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복지의 개념과 역할도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법적 설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활성화시키는 막중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복지협의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지역 내 복지 네트워크 구축과 자원 연계를 담당해 왔으나, 이제는 법적으로 모든 시군구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변화가 아니라, 지역 사회복지의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다지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각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복지 환경에 잘 대응하면서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급속한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저출생 문제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의 증가는 물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춘 스마트 복지 서비스 개발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복지 시스템 구축, 데이터 기반의 복지서비스 개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복지 정책 개발 등이 점점 더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비대면 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지역사회 내 돌봄 체계 강화, 위기 가정 지원 확대, 정신건강 복지 서비스의 확충 등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지속적인 연구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복지 환경에 적응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충북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40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40년,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지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체계 구축 등 협의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협의회는 지역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혁신적인 복지 모델을 발굴하며, 지속 가능한 복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민관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여 공공과 민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복지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행정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복지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내 다양한 복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나눔과 연대의 문화를 더욱 확산시켜야 합니다.

충북사회복지협의회는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역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지난 4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40년을 더욱 발전적이고 희망찬 미래로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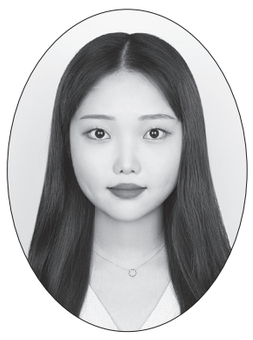
앞으로도 충북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더욱 발전하길 희망합니다. 40년의 역사를 넘어, 더욱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50년,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충북사회복지협의회의 창립 40주년을 축하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의 목소리

함께 만들어 나가는 '충북영상자서전'



이 서 현

청주서원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열심히 배우고 일하며 하루들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3년 차 사회복지사가 되었다. 나의 소중한 첫 직장이자 지금의 일터인 청주서원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한 건강증진, 이용자 중심의 노인복지, 여가문화사업, 지역사회 참여활동, 저소득 재가어르신 보호사업 등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실현하여 지역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나는 이곳에서 유능하고 따뜻한 선배 · 동료사회복지사들과 함께 노인을 위한 행복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라는 꿈과 함께 10년을 지내온 나에게 사회복지사를 꿈꾸게 된 계기를 묻는다면, 고교시절 청소년 봉사단에서 활동했던 것이 바로 그 계기였다. 내가 소속되었던 청소년 봉사단은 다양한 꿈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방법을 논의하여 봉사를 기획하고 실천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봉사활동을 하며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따뜻한 마음을 통해 조금씩 변화하는 세상을 기대하는 일이 나와 모두에게 행복을 준다고 느꼈고, 사회복지사가 되어 모두가 '함께' 만들어나가는 복지를 실천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올해부터 충북영상자서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내가 사회복지사라는 꿈을 갖게 된 순간을 자주 떠올리게 만드는 매력이 있다. 충북영상자서전사업은 충북도민의 영상자서전을 제작해주는 사업으로, 우리 기관에서는 시니어유튜버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기관은 노인에게 시니어유튜버 양성과정을 통해 새로운 기술 습득과 경제적 기회 창출을 지원하고, 시니어유튜버들은 충북도민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기록하여 도민에게 자신의 삶을 회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자서전을 공유함으로써 도민들은 경험과 지혜를 후대에 인생기록문화유산으로 전승한다. 정말 기관, 시니어유튜버, 도민 누구 하나 빠지면 나아갈 수 없기에, 내가 사회복사가 된 이유인 '함께'의 의미가 크게 느껴지는 사업이다.

시니어유튜버들은 이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고 자부심이 생긴다고 말한다. 노년기는 역할 상실과 사회 단절이 일어나는 시기로 이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로도 이어진다. 또한 현 사회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부양 부담 증가, 세대 간 갈등 등의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인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노인의 사회적 진입 장벽을 없애 사회참여 기회가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 충북영상자서전사업은 노인에게 '시니어유튜버'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여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이를 통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는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노인과 다양한 연령대의 도민이 소통하며 세대 간 이해가 증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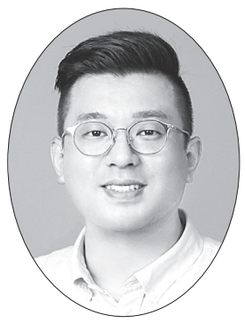
우리 기관은 현재 시니어유튜버 2기를 양성하고 있으며, 작년에 양성과정을 수료한 17명의 시니어유튜버 1기가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1기 인원 중 3명은 일자리촬영단으로 활동하며 영상자서전 제작을 본업으로 삼고 있다.

1기 양성교육은 작년에 끝이 났지만, 유튜버들은 매주 모여 영상편집 기술에 대해 서로 알려주고 함께 연구하며 배움을 이어나간다. 유튜버들은 직접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에 찾아가 사업을 설명하여 촬영대상자를 섭외하고, 사무실에 찾아와 촬영대상자를 섭외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한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이를 활용하여 도민들에게 소중한 경험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그들의 눈동자에 그대로 투영되듯 그들의 눈빛은 누구보다 반짝인다. 이렇게 멋진 열정을 가진 인생 선배님들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는 요즘이다.

우리는 지금도 열심히 충북도민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영상자서전을 제작하고 있으며, 촬영대상자가 원하는 날, 원하는 장소에서 소중한 이야기를 영상에 담을 수 있도록 어디든지 달려간다. 영상의 공개 여부는 촬영대상자가 직접 선택 가능하니 많은 도민이 부담 없이 신청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펼치고 소중한 순간을 영상으로 남기는 경험을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복지칼럼

1.1%의 기적, 사회복지현장에서도 이뤄지길



이 대 형

직지드림플러스보호작업장 원장

1.1%의 기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의거한 공공기관의 구매비율 달성치를 일컫는 말이다. 올해 개정 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은 기존 1%에서 1.1%로 상향되었다.

하지만 2024년 충청북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은 전체 평균 0.59%이며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과 제공) 개정되기 전의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비율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 우선구매 비율을 달성하는 것이 기적이라 칭할 수 있기도 한 상황인 것이다.

충북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8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충청북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개소를 운영하여 중증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분주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생산품의 영역도 복사용지와 정부화일을 비롯한 사무용품, 화장지, 물티슈 등 생활용품, 커피, 돈까스 등의 식료품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생산 및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설이 일반시장에서 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판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근로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자립 기반에 큰 역할을 하는 급여 지급에도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일반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회적 가치보다 자본주의 가치가 우선시 되는 사회적 소비기반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직지드림플러스보호작업장의 생산품인 비누 제품의 예를 들어도, 양질의 원재료를 사용하고, 전 공정을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하여 비누를 제작하면서 품질에 가치 더해가도, 유명 배우들을 광고모델로 내세워 자동화시스템을 통해 대량생산 된 비누와는 경쟁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장애인직업재활사업에 한정된 것도 아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생산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생산품,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생산품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생산시설에서 겪는 고충일 것이다.

이런 사회적 소비기반에 우리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같은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사회적 가치구매층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를 공감하고, 지역과 사람, 단체들이 서로를 공유하며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모두의 관심과 노력일 것이다.

충청북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의 전체 실적은 0.59%이지만 청주시와 보은군, 음성군은 각각 1%와 1.72%, 1.05%로 우선구매비율을 달성하였다. 특히 청주시는 올해 2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강화를 위해 산하 출자 · 출연기관 6개소를 대상으로 홍보를 확대하는 등 구매촉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이뉴스투데이 김지혁/2025.02.26.)

우리 사회복지현장 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비롯한 사회적 가치생산품을 이용해 주고, 널리 알리는 데 동참해야 할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북의 중증장애인생산품들은 사회복지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사무실에서 흔히 사용하는 복사용지, 정부화일, 생활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지와 물티슈, 단체급식소에서는 조미김과 돈까스, 국수면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각 기관이나 시설들에서 홍보사업으로 소비하는 판촉물 제작 사업은 이미 충북에서 5개소가 제작, 생산하고 있어 폭넓은 시장을 자랑한다. 단순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반시장의 자본주의 상품을 구매하기보다 장애인들과 장애인복지현장의 동료사회복지사들이 함께 만들어 낸 중증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해 준다면, 사회복지현장에서부터 1.1%의 기적을 달성하고, 나아가 관공서와 일반시장에서도 1.1%의 기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난해부터 보호작업장 근로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직지드림플러스보호작업장의 장애인 근로인 이00씨의 꿈은 저축을 통해 월셋집에서 전셋집으로 이사를 하는 것이다. 생활고로 인해 노숙 생활과 영양실조까지 겪었던 이00씨에겐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은 정말 꿈을 이룰 수 있는 꿈의 터전이었다고 생각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이 관공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현장에서도 이루어져서 이00씨가 꾸는 자립의 꿈을 이룰 수 있길, 그런 1.1%의 기적이 이뤄지길 소망한다.

똑똑똑! 법률홈닥터입니다.

취약계층 법률 상담 서비스 법률홈닥터

법률홈닥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원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시 간 월~금 10:00~17:00(공휴일 제외)
전 화 043-238-0843
사무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2호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법률홈닥터

이 달의 법률상식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신인경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Q. 아이 출산 이후 엄마가 행방불명이고, 인적사항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미혼부인 아빠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종전에는 생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미혼부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인적사항을 통해 생모의 혼인관계와 국적이 확인되어야 출생신고가 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미혼부가 자녀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특별대리인 선임-성, 본 창설 및 가족관계 등록 창설-인지소송으로 이어지는 수차 례의 재판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는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의 충돌과 불법적인 국적취득을 막기 위한 절차였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데 1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미혼부가 자녀의 가족관계 등록을 포기하여 자녀가 의료보험 · 육비 지원 등 각종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자녀를 고아원에 보낸 후 입양하는 편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2015. 11. 1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위 개정법에 따라 생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미혼부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법원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미혼부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생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게 된 사유(예 : 생모가 출산 직후 자녀 유기하고 잠적 및 연락두절)를 기재하고,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혈연관계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유전자 검사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1통 또는 주민등록 등 · 초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관계자 · 기관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관계자를 심문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경우, 출생증명서 대신 그 확인서 등본을 제출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출생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출생신고서에 출생장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사동정

■ **충북사회복지사협회**
▷ 회장 조수동 / 2월 20일자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 관장 장화정 / 3월 1일자

■ **음성군자원봉사센터**
▷ 센터장 윤호숙 / 3월 5일자

■ **북부종합사회복지관**
▷ 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
▷ 관장 허성희 / 4월 1일자

인사동정 이용 안내

●사회복지시설(기관 · 단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사이동(기관장 변경, 법인 내 이동 등)에 대해 게재를 원하시는 시설은 문의 바랍니다. ※043-234-0840 김세나 사회복지사

복지정보 제공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제공 서비스' 신청 안내]
■ 신청대상: 도내 사회복지시설 · 기관 종사자
■ 발송내용: 도내 사회복지 행사 안내 및 유관기관 공모사업 제공
■ 발송횟수: 주 3회
■ 신청기간: 상시접수
■ 신청방법: '충북복지넷' 홈페이지(www.043w.or.kr) 팝업창 참고

[충북사회복지협의회, 2025년도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 교육 신청 안내]
■ 진행일시: 3월 ~ 12월 (연중 신청가능)
■ 진행장소: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1층)
■ 진행대상: 초 · 중 ·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등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근무자 및 이용자
■ 주요내용: 유니버설디자인(UD) 이론 교육, 유디체험관 및 주택체험관 견학
■ 신청방법: 전화 접수(T. 043)234-0840~2)
■ 참고: www.043w.or.kr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안내]
■ 사업내용: 도전행동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 이용이 힘든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 및 원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주요서비스 및 제공시간
- 24시간 개별 1:1 지원(주중 낮활동과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돌봄서비스)
- 주간 개별 1:1 지원(이용자 특성에 맞는 1:1 개인별 맞춤형 낮활동 서비스)
- 주간 그룹 1:1 지원(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사용하는 1:1 그룹형 낮활동 서비스)
■ 서비스내용: 도전행동지원, 일상생활훈련, 자립생활, 취미활동 등
■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043-716-2168~9)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14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유공자 공모 안내(희망멘토링 부문)]
■ 추천대상: 개인(국민 누구나) 또는 단체
*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멘토링 활동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 멘티와의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통해 역할모델을 제시하고, 심리 · 사회적 지원을 실시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멘토
■ 추천내용: 지속적인 멘토링 활동을 전개하여 국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
■ 포상규모: 총 131점, 4개 분야(희망멘토링, 인적나눔, 물적나눔, 생명나눔)
■ 접수기간: ~2025. 4. 8.(화) 16:00까지
■ 접수방법: 제출서류 일체 우편 및 이메일 모두 제출
■ 참고: www.bokji.net

[푸르메재단, 2025 현대모비스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 (2007. 1. 1. ~)의 장애어린이(만 5세 이하의 경우 미등록 포함)
■ 지원내용: 재활치료비 : 병원(의료기관) 재활의학과 및 소아정신과 모든 재활치료 항목 (1인당 최대 200만원)
■ 지원기간: 2025년 5월~12월(8개월)
■ 신청방법: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서류 구비 후 이메일 신청 / 보호자(개인) 신청 불가
■ 신청기간: ~2025. 4. 10.(목)
■ 참고: purme.org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BI 공모전]
■ 공모주제: 소외된 우리이웃 지킴이 '좋은이웃들' 사업의 정체성을 담은 로고 등의 이미지
■ 공모자격: 전 국민 누구나 출품
■ 접수기간: ~2025. 4. 13.(일)까지 이메일 접수
■ 시상규모: 최우수-1건(300만원), 우수-1건(50만원), 장려-2건(각 25만원)
■ 참고: www.bokji.net

[성주재단, 2025년 여성지원 프로그램 공모사업]
■ 공모주제: 여성 임파워먼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자유주제)
■ 응모자격: 여성 대상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법인, 기관, 단체, 시설
■ 접수기간: 2025. 4. 14.(월) ~ 4. 18.(금)
■ 사업비: 최대 700만원
■ 응모방법: 본 재단 홈페이지(www.sungjoofoundation.com) 내 신청서 다운 및 작성 후 이메일 제출

[아산사회복지재단, 제37회 아산상 후보 추천 안내]
■ 후보자 요건: 봉사정신으로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였거나, 효행 및 가족사랑을 실천하여 사회의 귀감이 된 개인 또는 단체
■ 시상내용(상금): 아산상(3억원), 의료봉사상(2억원), 사회봉사상(2억원), 복지실천상(2000만원), 자원봉사상(2000만원), 효행 · 가족상(2000만원)
■ 추천방법: 재단 홈페이지(www.asanfoundation.or.kr) 내 서류 다운 및 작성 후 온라인 제출
■ 접수기간: ~2025. 4. 25.(금)

[함께하는 사랑밭, 위기가정 희망지원사업]
■ 지원대상: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
■ 지원내용: 청소년 결연 지원, 생계 · 의료 · 교육 · 주거 · 심리정서 지원, 긴급한 위기상황 극복 지원, 온라인 모금 · 캠페인 지원
■ 신청기관: 아래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회복지기관(대상자 개인신청 불가)
*지원금 전용 기관계좌 개설 및 집행 가능 기관
*사례관리 실무 기관
■ 지원기간: 연중 상시(당해년도 예산 소진 시 마감)
■ 신청방법: 홈페이지(www.withgo.or.kr) 내 '위기가정 희망지원사업' 페이지 접속 및 신청서 작성/이메일 제출
■ 문의: 지역별 문의처 상이

[김대일문화재단, 2025 나들이 지원사업 [놀이 ; 하다] 참여기관 모집 안내]
■ 신청요건: 아동양육/보호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 지원대상: 해당 시설 이용자 및 관계자
■ 신청기간: 2025년 3월~10월 중 상시 모집
■ 지원내용: 나들이 프로그램 진행 비용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1박2일 또는 2박3일 나들이 프로그램 진행 가능)
■ 참고: www.kdcf.or.kr

자원 봉사자 모집

▶충북사회복지신문 우편발송 작업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4.1 ~ 4.30
전화번호: 043-234-0840

▶ 마을기자단 활동
관리센터: 청주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4.1 ~ 4.30
전화번호: 043-266-4761

▶ 행정업무 보조
관리센터: 청주가경노인복지관
활동기간: 4.1 ~ 4.30
전화번호: 043-236-0111

▶ 요양병원 정기공연
관리센터: 청주시립요양병원
활동기간: 4.1 ~ 4.30
전화번호: 043-220-8000

▶ 장애인 생활지원
관리센터: 나눔의집
활동기간: 4.1 ~ 4.30
전화번호: 043-843-9912

▶ 이중언어 직접교육
관리센터: 충주시가족센터
활동기간: 4.1 ~ 4.30
전화번호: 043-855-2251

▶ 생활관 · 주방환경정리
관리센터: 충주성심맹아원
활동기간: 4.1 ~ 4.30
전화번호: 043-843-1432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 연중
전화번호 : 043-234-0840~2
*자료출처 : www.vms.or.kr

지역사회봉사단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 이해관계자 교육

충북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응모)는 3월 6일, 7일 양일간 사회복지 자원봉사 신규 인증관리 요원 약 6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봉사단 이해관계자 교육을 진행했다.

이 교육은 매년 8회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봉사단 홍보, 위촉, 활동재료 지원사례 등을 주제로 충북지역의 사회복지시설(기관, 단체)에게 지역사회봉사단 활동 및 다양한 봉사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오는 6월 중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하여 도내 활동 중인 지역사회봉사단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희망나눔 전문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되어 있는 2인 이상 자원봉사자로 기술 및 재능을 가지고 있는 단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활동 혜택으로는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의 맞춤형 봉사활동 연계, 봉사활동 활동재료 지원, VMS 봉사실적 관리, 우수봉사단 표창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만/평

같은 사안 다른 처방

이창신 www.bokmani.com

없애야 할 것은 시설이 아니라 인권침해 그 자체입니다.